

OCTOBER



19기 베트남팀
강예진 김나은 원민석 조은솔 최인혁

자기소개_ 자신을 동물에 비유한다면

라온아띠 19기 지원서 중 이하 질문이 있었다.

2. 나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동물을 선택한 후 이유를 적어주세요(800자)

베트남팀 멤버들은 각각 어떤 동물을 선택했을까?

은솔



황제 펭귄
협동, 책임감

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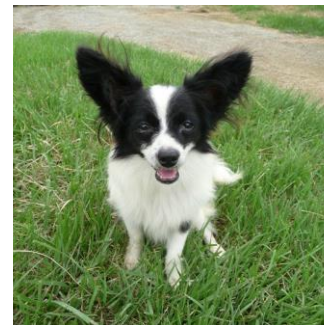
돌고래
정 많음

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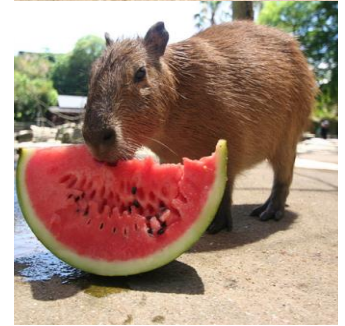
백곰
포용력

인혁



빠빠용
밝은 미소

예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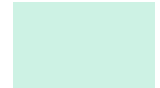


카피바라
친화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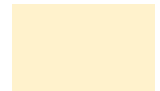
EPC에 미친 베트남팀의 10월 일정표_10.01~10.31

10월 한 달간 YSD는 우리의 End Poverty Campaign 준비를 위해
매주 월, 화를 EPC day로 지정해 주 4회 봉사 스케줄을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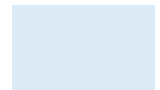
VIETMEN Team Schdule Sheet						
2019.10.01~10.3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0.1 Thao Dan	2 Ky Quang	3 Thao Dan	4 Ky Quang	5 은솔 생일 Thao Dan
6	7 Prepare EPC	8 Prepare EPC	9 예진 생일 Ky Quang	10 Thao Dan	11 Ky Quang	12 Thao Dan
13 Reflection 가을이네 카페	14 Prepare EPC	15 Prepare EPC	16 Ky Quang	17 Thao Dan	18 Ky Quang	19 인혁 생일 Thao Dan
20 Prepare EPC	21 Prepare EPC	22 Prepare EPC	25 Ky Quang	17 Thao Dan	25 Ky Quang	17 EPC D-Day
27	28 Prepare EPC	29 Prepare EPC	30 Ky Quang	31 Thao Dan		



End
Poverty
캠페인



Thao Dan
학교 밖
청소년 센터



Ky Quang
사찰 내
보육센터

CONTENTS

1

Ky Quang
Thao Dan

9월 reflection
우리가 직면한 문제
활동평가

2

End
Poverty

준비 및 진행과정
활동평가

3

후반기
활동 계획

Ky Quang
Thao Dan
Atti 프로젝트
홈스테이, 여행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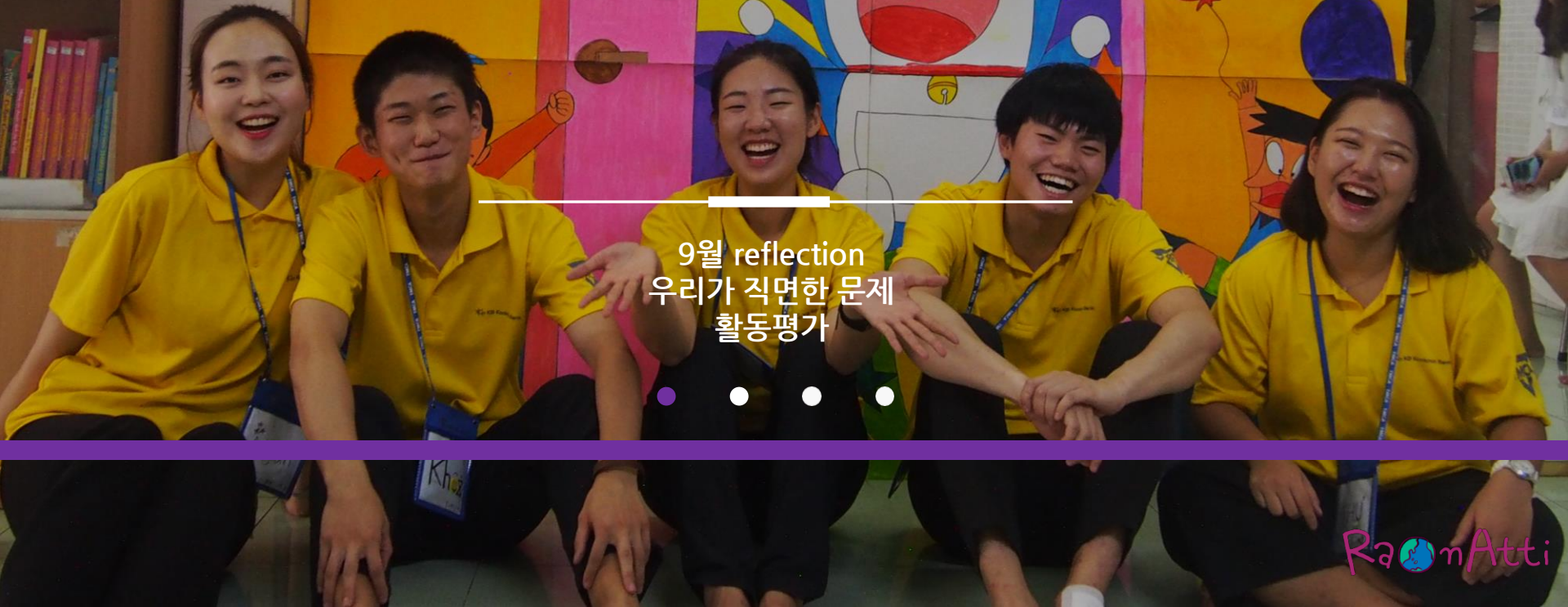
우리들의
이야기

서로에게 한마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개인에세이



1

Ky Quang & Thao Dan



9월 reflection
우리가 직면한 문제
활동평가



A group of children, mostly boys, are gathered around a table in a library, looking at a book together. They are wearing brown uniforms. A woman in a white shirt is also looking at the book. The background is filled with bookshelves. A blue backpack with the British Council logo is in the foreground.

Ky Quang

보육, 교육으로 아이들과 함께한 10월의 Ky Quang

Reflection with Ky Quang

10월 11일, Mr. Hai와 진행한 9월 reflection

Mr. Hai 피드백:

맡은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는 봉사팀은 드물다. 다른 봉사자들과 달리 아동의 특성을 천천히 파악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아이들을 돌볼 때 필요한 간단한 스킬 및 베트남어를 더 잘 알 것이다. 앞으로 방문할 단기 봉사자들을 위해 설명서를 제작하는 게 어떨겠냐.

이제부터 비장애 아동에게 영어를 제외하고도 Life skill을 주제로 가르칠 수 있다.

영어만 가르쳤던 9월

자기소개, 인사, 신체, 질병, 병원, 색깔, 날씨

피드백 전

피드백 후

달라진 교육 주제: Life skill

Ex) 사회성 기르기,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공공재산 소중히 여기기

Ky Quang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

1. 키왕 파고다에 8시30분까지 가야하지만 9시까지 가고있다.

왜? 9시부터 수업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나아갈 방향 : 9시까지 간다고 Mr. hai에게 말씀드린다. 만약, 아띠들이 8시30분까지 꼭 오라면 우리가 확실한 수업시간 약속을 받고 더 부지런히 준비한다.

2. 수업 취소가 잦다.

왜? 문이 열려있지 않다.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는다.

나아갈 방향 : Mr. hai에게 수업시작을 정확히 공지 받는다.

3. 수업준비가 부족했다.

왜? epc 준비로 실라버스 준비 미흡했다. 지치고 힘들어서 초심을 잃었다.

나아갈 방향 :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아동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수업을 계획한다. 초심을 찾는다! 아자! 즐기자! We're not workers!

Ky Qunag 활동평가

예진

아이들을 대하는 것에 자연스러워진 스스로가 신기할 따름이다. 말이 통하지는 않지만 아이들과 온 맘으로 소통하는 것에서 순수함과 행복감을 느낀다. 이 아이들이 현재와 미래에 정말로 잘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공감의 감수성을 키왕에서 듬뿍 채우는 요즘이다☺

나은

아이들과 몸으로 놀아주고 교감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아쉽기만 하다. 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과 장난끼를 볼 때면 내 마음이 사르르 녹는다!

민석

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바디랭귀지만 늘은 것 같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즐겁다. 수업을 하여도 말이 되지 않아 아이들과 좀더 정확하게 소통하지 못해 아쉽기만 한데 우리와 함께 있어도 즐거워해주고 이름을 불러주는 아이들이 고마울 뿐이다.

은솔

Ky Quang에서 바라는 우리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기관 담당자분께 피드백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장애아동 보육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장애아동 교육은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인혁

처음에는 낯선환경, 소통의 문제로 많이 힘들었었지만 온갖 방법으로 아이들과 친해질려고 노력하다보니, 요즘은 아이들과 만나기만 하면 재미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RoomAtti
한국YMCA전국연맹
KB국민은행

SAY NO

Health Sustainable Development
NEXT GEN
CƠ SỞ BẢO TRƯỞNG VÀ HOẠT ĐỘNG
THẢO ĐÀN

THAO DAN

다양한 아이들, 사람들과 함께한 10월의 THAO DAN



Reflection with Thao Dan

10월 3일, Ms. Ngon과 진행한 9월 reflection

Ms. Ngon 피드백:

많은 시간을 회의와 실라버스 작성에 쓰는 모습이 소극적으로 비춰졌다.

문제가 발생했을 시 선생님들과 함께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해줄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제공할 테니 말만 해라.

화, 목 아침엔 학생이 없고, 오후엔 학생 모두 각자의 숙제가 있으며 숙제를 도와줄 staff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화, 목에 수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화요일, 목요일

실라버스 작성 후
영어수업 진행

토요일

Meaningful game day

피드백 전

피드백 후

화요일, 목요일

도서관 만들기와 실라버스 작성

토요일

한가지 같은 주제로
오전에는 한국어수업,
오후에는 영어수업

Thao Dan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

1. 반복되는 토요일 수업 취소

왜? 타 봉사자들의 수업에 대한 사전 공지가 없이 방문한다. 선생님과 스케줄 공유가 되지 않는다.

나아갈 방향 : 스케줄 사전공지를 부탁드린다. 수업할 수 있는 토요일을 확보하고 차선책을 준비한다.

2. 수업 준비가 부족했다.

왜? 사무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epc준비를 타우단에서 했다. 기관 방문의 의미를 잃었다.

나아갈 방향 : epc도 끝났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아동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수업을 계획한다. 초심을 찾는다! 아자! 즐기자! we are not worker!

Thao Dan 활동평가

예진

두 달이라는 기간동안 기관의 아동과 많이 친밀해 졌다. 기관에 들어갈 때 달려와 반갑게 맞아주는 아동을 볼 때면 알 수 없는 간지러운 감정이 들 때가 많다. 그저 고맙고, 더욱 잘해야겠다는 생각 뿐이다. 시간이 지나고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닌, '바로 지금' 아동과 정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온 맘 다해 아이들과 함께 하련다.

나은

타우단에서는 제대로 교육 봉사를 해 본적이 없어서 아쉽기만 하다. 매번 예정되지 않게 바뀌는 스케줄이 스트레스였다. 좀 더 효율적으로, 의미 있게 활동을 하고 싶었다.

민석

여기 아이들은 참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다. 이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이 힘들기도 해도 재미있게 놀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웃는다. 교육 봉사로도 아이들 위해 더욱 재미있게 놀아주고 싶고 소통할 수 있도록 더더더 노력하고 싶다.

은솔

Thao Dan과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역할이 달라 혼란이 있었다. 우리 팀이 주체적으로 기관과 소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단 수동적으로, 그저 흘러가는 대로 따랐던 것 같아 아쉽다. EPC가 끝나 바쁜 시기도 지나갔으니 직면한 문제를 소통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인혁

타우단에서도 아동들과 많이 친해진 것 같다. 항상 우리가 방문할 때면 언제나 반겨주는 점, 처음에는 우리를 낯설어하는점이 있었지만 요즘엔 먼저 다가와주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에게 너무 고맙다. 하지만 아이들과 놀아줄 뿐 그 외에 활동을 많이 못한 거 같다.



2

End Poverty Campaign

준비 및 진행과정
활동평가



End Poverty

9월: 현지적응 & End Poverty **Project** 준비

Sep

*Planning
project*

Oct

*Implement
project*

Nov

*Evaluation
project*

End Poverty Project Timeline

YSD는 우리에게 End Poverty Project (EPP) 의 Timeline을 제시했으며
한달 간 총 두 번에 걸친 전문적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수업을 받았다

End Poverty

9월: 현지적응 & End Poverty Project 준비

EPP 기획안

- poverty 의미정의

*사전적 정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

*우리의 정의: 전 지구적으로 물질적 가난(굶주림 아동등)과 더불어 인권이 침해받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빈곤을 의미한다.

- 지역사회의 의미 정의

*사전적 정의: 인간관계에 의해, 또는 지리적행정적 분할에 의해 나누어진 일정 지역의 사회.

*우리의 정의:

다양한 빈곤을 갖고 있고, 마주하고 있는 공동체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마을, 타우단과 같은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장소)

자주 만나 친밀해진 공동체

소통의 장

변화 가능성(지역형태, 규모, 사람)

- 캠페인 의미정의

*사전적 의미: 캠페인이란 일정한 장에 있어서의 행동, 특별한 목적을 가진 조직적 활동

*우리의 의미: 캠페인의 긍정적인 의미인 시민 교육에 집중하여, 캠페인 주제와 목적에 맞는 교육을 진행한다. 전에는 고려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혀준다.

알리기전

시민 참여

상호작용

정보전달

공유

Spread

- Prove the connection between our idea with Poverty, why teach children to protect themselves that end poverty (Vietmen)

*우리의 의미:

1. 문제상황 분석: 필적조사(버디, YSD member, Kiet)
필적조사를 통해 19-23세의 베트남 청년들의 답변을 받았다.

- 교육의 주제

베트남 아이들은 부모와 선생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예로는, 독립심을 기르기 위해 밤에 아이들을 길거리에 혼자 다니게 하는 것, 낯선 사람에게 항상 우호적으로 대하는 베트남의 문화, 타인이 친밀감의 표시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이 있다. 이로 인해 아동 납치나 성추행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매일 밤 늦은 시간까지 수많은 회의가 진행되었다

- EPP를 진행하면서, 우리와 버디가 합쳐진 새로운 Kovi 팀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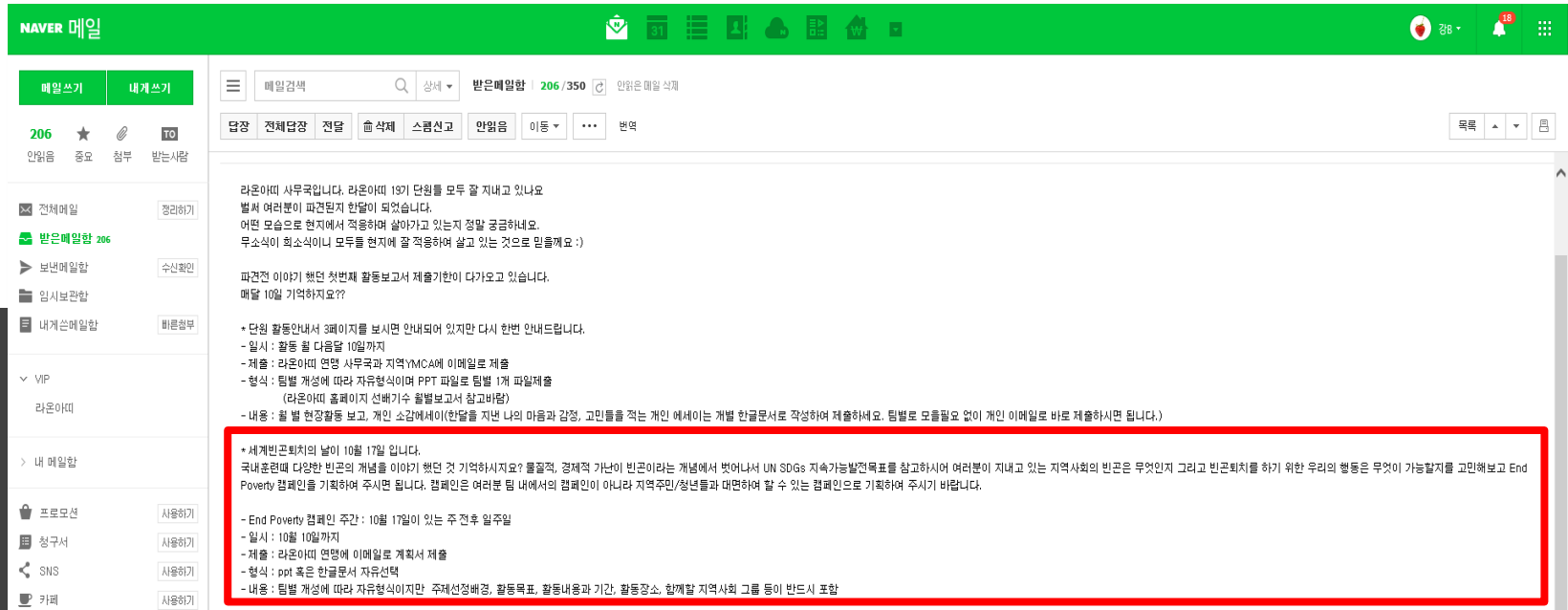
(Korea + Vietnam의 합성어/ 뜻: 한국과 베트남에 장벽은 없다)

- Kovi 팀 내에서는 언어와 일정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최고의 과정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팀원 모두 피곤함을 꼭 참아가며 프로젝트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Meeting report

End Poverty

'Project' → Campaign' 으로 계획 변경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뒤엎은 사건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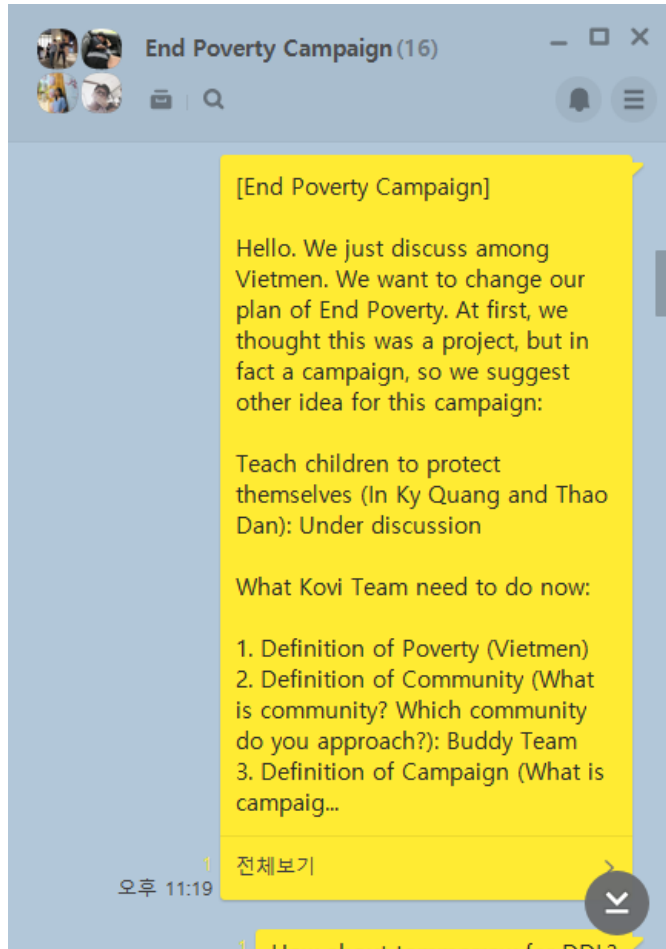
우리는 End poverty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기획 중에 있었지만 9월 27일 Y 사무국에서 온 메일에는 프로젝트가 아닌 **캠페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큰 혼란에 빠졌었다

우리는 프로젝트와 캠페인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지었다.

때문에 지금까지 기획한 프로젝트를 무산시켜야만 한다는 사실이 큰 실망감과 무력감을 안겨주었다.

End Poverty

심기일전한 VIETMEN! 다시 시작이다☺



하지만 VIETMEN이
이런 일로 풀 죽어 있을 순 없지!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End Poverty
캠페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먼저 YSD측과 버디에게 프로젝트가
아닌 캠페인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고, 다시 캠페인 기획의 첫 단계로
돌아가 얽힌 실타래를 차례대로 풀어나
갔다.



전송



End Poverty

캠페인 준비 과정

: 베트남에는 어떤 빈곤이 존재할까?



베트남에서 2개월 생활하면서 다양한 빈곤을 마주할 수 있었다.

일상생활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매연, 교통체증 및 소음 공해가 있다.

또한 봉사하고 있는 기관인 키왕에서는 2차 성장을 겪는 남녀 아이들을 같이 샤워 및 탈의하는 것, 천장 물이 새는 것, 화장실과 부엌이 같이 사용되는 위생문제, 아이들을 향한 폭력, 장애아동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었다.

End Poverty

캠페인 준비 과정

: 현지인과 빈곤에 대해 대화하고 주제선정하기



코비팀의 가을&봄과 이야기하던 중, 베트남 아이들의 경우, 선생님이나 부모님들로부터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어른들은 아동이 낯선 사람이나 친지로부터 불필요한 접촉을 받았을 때, 그것은 아동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게끔 교육하곤 한다. 또한 베트남의 아동은 자기 몸에 대한 인지와 방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환경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End Poverty

캠페인 준비 과정

: 현지인과 빈곤에 대해 대화하고 주제선정하기

End Poverty Campaign Survey

Hello. Please answer the question, and it can help us. The subject is 'Protect ourselves'. Thank you.)

1. How old are you? *

단답형 텍스트

2. Can you tell me about your experience or some case 'relation to all acts of protecting yourself?' (For example: Children in Vietnam find it difficult to express their rejection of what others have in contact with them. They are forced by their parents or adults to take elevators alone or walk on the streets at night to increase independence.) *

장문형 텍스트

3. What do you think about act of protecting yourself? *

장문형 텍스트

4. Share your ideas on what kind of activity you would like to conduct a campaign under the theme of "Protecting yourself." *

장문형 텍스트

5. Please write other opinions

장문형 텍스트

- 베트남 아이들은 부모와 선생님께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독립심을 기르기 위해 밤에 아이들을 길거리에 혼자 다니게 하는 것, 타인이 친밀감의 표시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할 경우에도 타인에게 우호적으로 대하게 교육하는 것이다.

= 이로 인해 아동 납치나 성추행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때문에 관련 행위 인지 방법, 대처 방법을 아동에게 교육시켜 줌으로써 스스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베트남 아동들의 성인지 실태 질적조사
-19-23세의 베트남 청년들의 답변을 받았다

End Poverty

캠페인 준비 과정

: 지속가능한발전목표에 기반한 캠페인 기획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우리는 “SAY NO!”라는 주제를 선정했으며, 유엔이 지정한 지속가능한발전목표 중 **1번 빈곤퇴치, 4번 양질의 교육, 16번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에** 기반하여 캠페인을 기획했다.

- SAY NO의 의미: 아동 스스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인지 할 수 있다.

End Poverty

캠페인 준비 과정

: 문제 상황 발생



기획단계에서 우리는 베트남의 초등학교와 파트너십을 맺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베트남의 공교육기관에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기간(15~30일) 내에 정부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팀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Thao Dan이라는 기관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려 했다.

기관측의 허가, 피드백 이후의 수정, 기관 일정 등의 이유로 시향착오가 있었고, 결국 10월 26일에 Thao Dan에서 End Poverty Campaign을 진행할 수 있었다.

End Poverty

캠페인 진행 과정

: Self-defense라는 주제를 알리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

EPC 목표

1. 자신의 몸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준다.
2. 타인이 행하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에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준다.
3. 관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동이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알려준다.
4. 아동이 문제상황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가져 볼 수 있도록 돕는다.

End Poverty

캠페인 진행 과정 :활동

Opening: Watching SAY NO video and doing word puzzle



- 활동: 비디오를 통해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Self-defense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설명해준다.
단어 퍼즐을 통해 주제와 관련된 주요문장 세가지를 상기시킨다.
(네 몸의 주인은 너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너의 생각을 자유로이 말할 수 있어)
- 의미: 비디오를 통해 아동의 흥미유발과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부스 운영에 대한 방식을 인지시킨다.

End Poverty

캠페인 진행과정 :활동

Station1: A box of brave



- 활동: 아동을 박스 앞으로 인도하고, 아동이 박스 안에 손을 넣어서 물건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추측한 정답을 외쳐서 정답을 맞추게 한다.
- 의미: 두려움을 극복하는 상황을 통해 아동에게 용기를 심어준다. 다른 세션을 진행 하기 이전, 기본이 되는 세션이다.

End Poverty

캠페인 진행 과정

:활동

Station2: The way of warrior



- 활동: 부루마블을 활용하여 주제 관련 문제 상황과 대처방안 퀴즈를 진행 한다.
- 의미: Self-defense와 관련하여 아동이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대처방안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nd Poverty

캠페인 진행 과정 :활동

Station3: The choice of warrior



YES or NO
Hãy lựa chọn hành động và cảm nghĩ của các em khi phải sinh ra những tình huống dưới đây

1. Cảm thấy vui vì bản thân được người khác yêu thích	2. Chia sẻ với những người lớn tuổi	3. Với mức độ tin cậy không xác định
4. Bị đến có cá nhân mới và bảo cáo sự vấp	5. Chấp nhận vì cái gì mà người khác không chấp nhận	6. Không thể nói chuyện với bất kỳ ai
7. Khó chịu	8. Không có bất kỳ suy nghĩ gì	9. Nói giận
10. Tránh xa anh chàng	11. Hoàng hôn quá đẹp	12. Sự hài lòng
13. Muốn khóc	14. Có cảm giác an toàn	15. Cảm thấy thất vọng

Tình huống	YES	NO
 Câu hỏi khắt khe giúp bạn vượt qua khó khă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ạn của mẹ tôi bảo vì tôi có tương lai muốn hôn làm tôi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YES
Có thể bảo vì thấy tôi có vẻ mệt mỏi nên xin bảo vệ tôi và sinh cho tôi.
Bạn tôi đi ngang qua và gặp được những cách chọn vào miệng của tôi.
Ông chủ nhà hàng xin đầu tôi và khấn khấn thường xuyên.
Tôi đã chọn vào cơ quan mới của tôi và bảo tôi đã lớn hơn nhiều.

- **활동:**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을 보고 느끼는 감정을 고른 뒤, 팀원들과 그 상황에 대해 토의한다.
- **의미:** 아이가 문제상황에 대해 질문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게 만든다.

End Poverty

캠페인 진행 과정 :활동

Station4: The power of warrior



- 활동: SAY NO 부채제작과 현수막 사인을 한다.
- 의미: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현수막에 아이들의 이름을 채움으로써 아이들의 자기 방어 의식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도록 의도한다.

End Poverty

캠페인 진행 과정 :활동

Closing: Review time



- 활동: 주제와 관련된 여러 질문을 통해 어린이들에 대한 캠페인을 검토한다.
- 의미: 아이들이 캠페인을 통해 경험하는 자기 방어가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도록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End Poverty Campaign 활동평가

예진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혹은 존재하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여러 빈곤에 대해 생각해본 좋은 계기였다. 순탄치 않은 준비과정 속에서 서로 인내하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해준 5명의 팀원과 아무런 조건없이 무한한 도움을 준 버디팀에게 가장 고맙고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나은

EPC의 대장정을 무사히 함께 해준 우리 VIETMEN에게 고마움을 표현한다. 모두들 각자 맡은 바에 최선을 다 했고 정말 수고 많았다. 그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캠페인을 통해 베트남 아동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인지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낀다.

민석

빈곤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해볼 수 있었다. 여러 부스를 만들어보면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소중한 몸을 지키고 말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준비하였고 잘 따라주어서 뜻깊은 활동이었다. 코비팀 정말 수고 엄청 많았습니다,,, 짹

은솔

최선을 다해 준비했기에 캠페인이 마무리 된 현재 아무 미련없이 그저 훌가분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저학년 참가자 입장에서 우리가 주제를 전달하는 방식이 어렵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참가자가 핵심 내용만큼은 확실히 이해했다고 하니 다행이다. KOVI팀, 특히 VIETMEN 정말 고생 많았다.

인혁

Epc활동을 하기까지 무려 1달 1반이라는 시간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무사히 마무리한 우리팀원들과 버디들에게 고마운 마음뿐이다. 그리고 베트남에 존재하는 빈곤의 종류를 알 수 있었고 아동들이 자신의 몸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3 후반기 활동 계획

Ky Quang
Thao Dan
KB 프로젝트
홈스테이, 여행



End Poverty를 캠페인이 아닌 프로젝트로 이해

1

사무국의 이메일을 통해 프로젝트가 아닌 캠페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준비하던 프로젝트가 캠페인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달간 준비한 프로젝트가 무용지물이 되어 무기력했다.

Mr. Hai의 제안

2

Ky Quang의 담당자 Mr. Hai에게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는 봉사팀은 드물기에 앞으로 방문할 단기 봉사자들을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는 게 어떨겠냐고 하셨다. 공개롭게도 '단기 봉사자를 위한 매뉴얼'은 완벽히 우리가 준비했던 프로젝트의 핵심 활동과 일치했다.

3

OK! 준비했던 프로젝트를 아띠로 넘기자!

Atti Project

아동 권리 증진 <Promotion of Children's right>

프로젝트 명:

아동 권리 증진 <Promotion of child's right>

지역: Ky Quang Pagoda in Ho Chi Minh

기간: 11.1~12.15

프로젝트 대상:

직접수혜자 - 장애아동, 자원봉사자, 직원

간접수혜자 - 스폰서, 방문객

목적:

Ky Quang의 장애아동이 인권에 기반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활동	내용	목표
Who an I Board	아동의 특성 및 사진이 담긴 판넬 제작	봉사자가 아동을 사전에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봉사자 메뉴얼	자원봉사자의 업무를 알려주는 매뉴얼 제작	단기 외국인 봉사자의 업무 숙지를 돕고 직원과의 언어소통 격차를 줄임
프라이버시 커튼	교실 입구 및 샤워실 입구에 커튼 설치	샤워 및 환복 시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
미끄럼 방지 스티커	교실 내 경사진 곳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 설치	낙상사고 방지

11월 계획



두 봉사기관

Ky Quang

장애아동 보육 봉사과 동시에 프로젝트 준비

비장애아동 교육 Life skill 교육

Thao Dan

교육의 날 캠프 5박6일 국제캠프 참가

토요일 수업진행 환경, 위생 등 여러 주제

도서관 만들기 2, 3층 책 장르 분류(미정)



아띠 프로젝트

Ky Quang
아동권리 증진 프로젝트

준비단계

Who Am I Board 장애아동 관찰일지 작성,
프로필 사진 촬영

단기 봉사자 메뉴얼 하루일과 관찰일지 작성

프라이버시 커튼 재료 구매처 알아보기

미끄럼방지 스티커 재료 구매처 알아보기

CONTINUE

12월 계획



아띠 프로젝트

실행단계

Who Am I Board	작성, 프린트 후 부착
단기 봉사자 메뉴얼	작성, 프린트 후 부착
프라이버시 커튼	재료 구매 후 설치
미끄럼방지 스티커	재료 구매 후 설치

모니터링

Who Am I Board	설문조사
단기 봉사자 메뉴얼	설문조사
프라이버시 커튼	설문조사
미끄럼방지 스티커	관찰



아띠 프로젝트 끝나면 뭐할까?



1월 계획

○○

홈스테이

2주간 진행될
새로운 가족과의 만남

- * 팀원 한 명당 한 가정
- * 가족 중 최소 한 명 이상
영어소통 가능

○○

여행

모든 봉사과
프로젝트를 마친 후

버디와 함께 하는
마지막 여행!

4 우리들의 이야기

서로에게 한마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개인에세이



민석이에게 한마디

예진

민스가 나 프로꿀빨러 예진☺
남은 기간 동안 너가 하고 싶은 말 더욱
당당하게 하고, 팀원들에게 마음을 좀
더 열어주라!
굳은 일 도맡아줘서 고맙고,
우리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보자, 그리고 산책 한 번 가자^^
언제까지 내 데이트를 거절 할 수 없어
^^



은솔

민석아, 왜 버스 탈 때 내 옆에 앉질
않아?... 분명 내 옆자리도 비었는데
... 조만간 너랑 나 친해지길 바래
한 번 해야 할 것 같아ㅋㅋㅋㅋ
네가 차려준 밥 정말 맛있는 거 알지.
나 좀 알려줘. 내가 한 음식을 먹으며
애써 맛있다고 해주는 너희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나은

애증의 우리 민석아, 우리 이제 적당히 싸우
자^^ 너 덕분에 싸움꾼 다 됐어 ㅎ 청소, 빨
래, 옷 개기, 요리 등등 항상 굳은 일 술선수
범하고 우리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아
직 하고싶은 것, 가고싶은 곳 많으니까 남은
시간 즐기자! 많이 아낀다

인혁

우리의 하우스키퍼 민석쓰~~~ 항상
우리 팀원들을 위해 빨래 개주고
요리도 많이 해줘서 고맙다!!
진짜 너가 만든 음식이 가장 맛있어
벌써 절반 지났고 절반 남았는데 열심히 일
하고 열심히 놀러도 다니자!!

나은이에게 한마디

예진

안녕 내 룸메☺ 내 옆자리에서 잠 자는
걸 영광으로 알아~! 이 바부탱!
너랑 얘기 나눌 때면 언제나 편안하고,
바보 처럼 웃을 수 있는 것 같아, 팀원
을 많이 배려해주고, 챙겨줘서 고마워.
이제 남은 날 동안은 나은이 너 스스로
를 더 돌보고. 너가 하고픈거 다해보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너 많이 좋아한다!!!!!!

민석

긍정적 영향줘서 참 좋고 눈웃음 보기
좋다,,, 자주 봤으면 좋겠어~~~

은솔

나은아, 난 우리 팀에 네가 있어서
힘이 난다! 항상 내가 속상해 할 때
뒤에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줘서 고마
워! 네가 먼저 솔직하게 다가와주니
나도 너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

저번에 그거 훔쳐간 건 정말 미안...ㅎ
고의가 아니었던 걸 알아줘^^

인혁

여 나은쓰~~ 항상 팀원들에게 잘 맞춰
주고 뒤에서 챙겨주느라 ㄱㄱ

아 난 너가 한 음식도 맛있긴 하지만 아
직 좀 나보단 아닐랄까?ㅋㅋㅋㅋㅋㅋ
언젠가 우리 다 같이 대구 놀러가서 그
렇게 맛있다는 막창 대령해라~

은솔이에게 한마디

나은

항상 용기있게 말해주는 은솔 언니, 언니 우리 팀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꼭 필요한 존재야. 언니한테 배우고 싶은 점이 많아! 언니따라 베트남어 공부해야 당 ㅎㅎ 청소를 사랑하는 언니가 참 좋아><
그리고 그만 좀 훔쳐가...



민석

항상 팩트 폭력 해줘서 고맙고 청소하는 뒷모습 멋있습니다!

인혁

팀에서 나랑 유일한 동갑내기 은솔~ 항상 어려운 역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너를 보고 많이 배운다^^ 너한테 중국얘기 들을 때마다 핵꿀잼임ㅋㅋㅋㅋㅋ 근데 우리 이제 pc방 가야되서 못 들겠닥ㅋㅋㅋㅋㅋ
ㅋㅋㅋ

예진

조은솔이~ 언냐☺ 언니도 나랑 같이 방 쓰는게 영광이지? 다알어~ 언니가 우리 많이 배려해주고, 책임져줘서 고마워 남은 기간 동안 함께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아 보자..! 핫팅 (알지 내 마음? ㅎㅎ) 그리고 고민 있거나 힘들 때는 참지 말고 내 태평양같은 어깨에 기대++

예진이에게 한마디

나은

언제나 밝은 에너지를 주는 예진아,
PM할 때 너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워 ㅎㅎ 정말 고맙고 수고했어 내친구!
얼른 새로 산 옷 입고 놀러가자!!
그리고 약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해 상담해줄게 ㅎㅎ



은솔

예진아, 한마디 하라고 하니 어째 고생했다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냐ㅋㅋㅋㅋ 잠 많은 예진아, 우리 팀 리더한다고 잠도 줄여가며 회의록 정리하고, 버디에게 회의내용 전달하고, 밤새 영상 작업하고ㅌㅌ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

남은 3개월 우리 즐기면서 살자!

민석

pm하느라 수고했고 우리 잘 이끌어서 고마워~~~

인혁

야. 강예진. 지금까지. 수고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까지 힘든 거 아니까 굳이 말 안한다.
이제 우리 놀 날이 겁나 많으니까 이제부터 겁나 놀자!!!!

항상 니가 노래를 부르던 그 곳 가자^^

인혁이에게 한마디

예진

인혁아☺ 내가 반말해도 웃으며
반응해줘서 고마워
우리 친구니까^^
너 우리 의견 다 맞다고 하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것 있음 꼭 말해!
수고가 많다. 앞으로도 수고하자
그리고 조기 귀국 절대 불가^^



은솔

인혁, 예진이 생일날 너랑 나만 9월
월별 보고서 파트 마무리해서 산책도
할 겸, 초코파이 케익도 살 겸 나갔다
왔잖아. 그날 처음으로 동네 여기저기
돌러보며 다녔는데 솔직히 꿀잼이었
음ㅎ 일기까지 쓸 정도로ㅋㅋㅋ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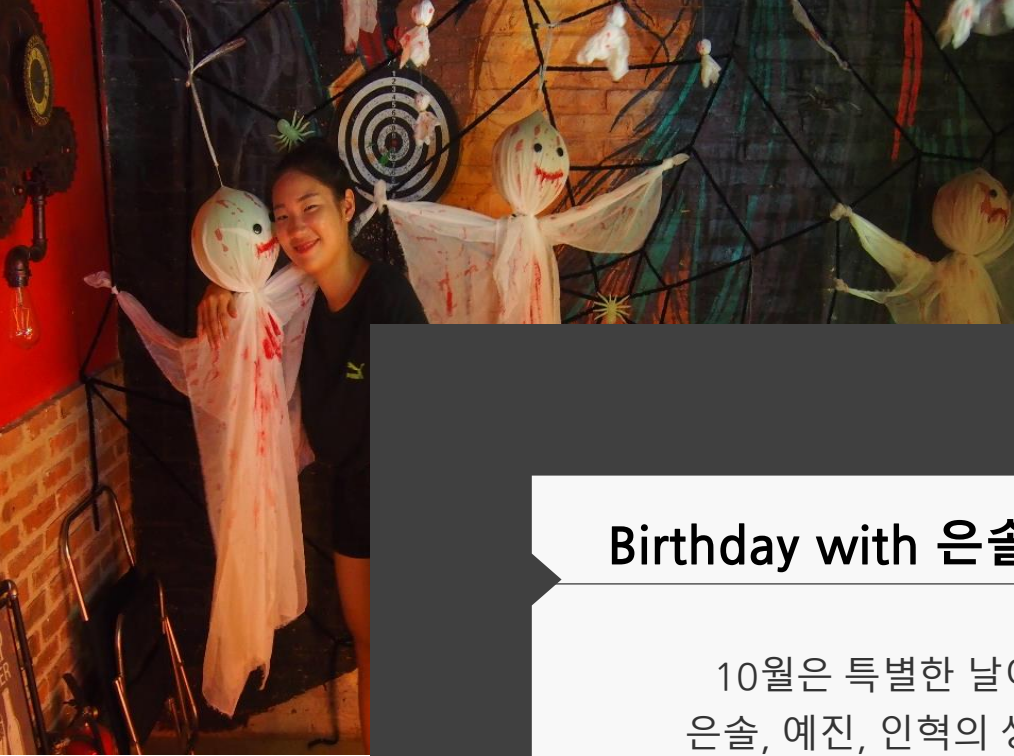
바쁜 거 끝나면 PC방 가서 너는 롤,
나는 넷플ㄱㄱ

나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깨워
주는 오빠, 가끔씩 오빠하는 말이 웃
기기도 하고 소름돋을 때도 많지만
내가 잘 받아줄게ㄱㄱ 아맛다, 오빠
가 웃을 때마다 광명 동굴로 빨려들
어갈 것 같아...

민석

우리 의견 잘 들어줘서 고맙고 샤워
빨리하는 거 아주 칭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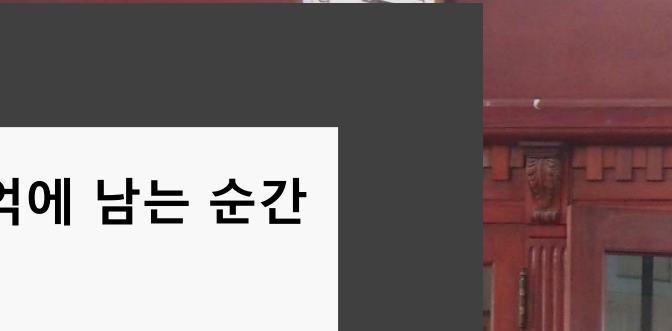


Birthday with 은솔, 예진, 인혁

10월은 특별한 날이 3번이나 있었다.
은솔, 예진, 인혁의 생일이 매주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린 매주 파티를 했다. 팀원들이 몰래 케익을 사와서 감동한 기억, 사온 케익을 얼굴에 묻혀 전쟁을 선포했던 기억, 생일을 맞이해 생일인 멤버가 거하게 음식을 쏟을 날, 잊지못할 추억이었다.





예진이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Location : Everywhere

이번달도 다양한 일들이 펼쳐졌다. 꼭 하나를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재미있는 일들이 가득했다. 그 중 인상깊었던 것은 루카가 데리고 가준 Cheese coffee가게! 매일 가고 싶은 정도로 맛있는 밀크티와 치즈케이크를 파는 집이다. 글을 쓰는 지금도 가고 싶다.

그리고 밤산책을 하다 발견한 Street food인 구운 달걀과 소시지! 로컬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편안한 사람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한 순간이라고 느껴졌다.

되돌아 보니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과 그것을 함께 먹었던 사람들이 가장 기억난다. 즐거웠던 10월 이었다☺



나은이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EPC준비로 매일 집에만 감금되어 도라에몽 포스터만 그렸다. 그러던 중, 꿀같은 휴식시간을 가지게 되어 민석이와 CGV건물에 다녀왔다. 아이쇼핑도 하고 농구게임도 한판하며 지친 일상에 벗어나 즐겁게 놀 수 있었다.

고기뷔페에서 배 터지도록 고기를 먹고 카라멜팝콘과 함께 말레피센트를 보았다. 자막 없이 외국 영화를 보는 것이 걱정스러웠지만 결과는 너무나 성공적이었다. 정말 재미있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에 뿌듯했다! 다음엔 겨울왕국2다>> 영화를 다 보고 집까지 걸어오는 길이 멀었지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함께 이야기하며 걸으니 금방이었다.





민석이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일요일에 버스를 타고 cgv건물에 갔다. 마치 한국의 백화점에 온 것 같았다. 정말 볼 것도 많았고 무엇보다 엄청 시원했다. 처음으로 고기뷔페에 갔는데 고기질도 좋지 않았고 맛이 없는데다가 가격이 비싸서 후회되기도 했고 간만에 고기라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게 좋았던 것 같다.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영화 “말레피센트”를 보았다. 영어로들으니 다 해석하기는 어려웠지만 듣기 위해서 더욱 노력한만큼 영상미도 보는내내 즐거웠다. 여기서 영화를 볼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봐서 더 좋았다.
ef. 안젤리나 졸리,,, 진짜 멋있다!





인혁이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 Location : walk & cheese coffee

10월은 봉사와 end poverty 준비로 많이 바쁜 달이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저녁을 먹고 팀원들과 한 산책, 아이스크림 내기 등 사소한 일상들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다. 그리고 end poverty가 끝나고 버디친구의 추천으로 간 카페가 너무 맛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고 사진은 없지만 다른 현지친구들도 새로 만나 이야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는 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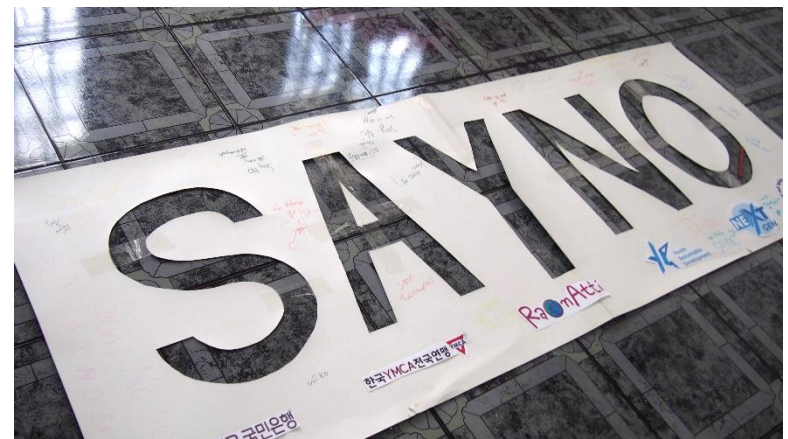
은솔이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문명의 도움 없이 지내본 하루

End Poverty 캠페인을 위해 현수막을 만들던 날,
손목시계와 노트북도 없이 그저 창문 밖
해가 지는 정도로 시간을 예측하며 작업했다.

자가 없으면 없는 대로 종이에 필요한 단위를 표시
해 자 삼아 이용하기도 하고, 커팅매트가 없으면
없는 대로 종이를 세워서 오려냈다.

문명의 도움 없이 지내본 하루는 생각보다
괜찮았으며, 오히려 여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예진이의 이야기

‘주변을 살피며 함께 걸어가야지’

EPC 준비로 바빴던 10월이었다. 나는 현지에서 바쁜 만큼 인생을 알차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크게 힘들지 않았는데 팀원들은 아니었나 보다. 10월이 마무리된 지금 지친 기색이 역력한 팀원들을 보며 미안한 감정과 주변을 더 살피고 돌아보지 못했음에 반성의 감정이 들기도 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상 팀안에서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된 것 같은데, 이 점이 재밌으면서도 아쉬운 감정이 들기도 한다. 이제까지의 공동체 생활에서 대부분을 리더의 역할을 맡아왔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끄는 역할이 나에게 더 쉽게 느껴질 때가 많다. 리더가 가져야하는 일정량의 책임감과 일은 내 삶에 동기부여를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라온아띠를 지원하면서도 리더의 역할을 맡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들어왔다. 많은 것을 내려 놓고, 팔로워십을 기르고 싶었다.





예진이의 이야기

베트남 중간 격려 이후 간사님은 나에게 더 내려놓으라는 조언을 해주셨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더 내려 놓아야 하는 것일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더 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방향성을 어떻게 수정해 나가야 할까? 또한 지역훈련에서의 중간 격려 때에 간사님께서 ‘너만 즐거운 것은 아니니? 주변을 더 살피며 함께 나아가렴’이라는 조언을 해주셨다. 그리고 이 조언을 베트남 중간 격려 면담에서도 똑같이 말씀해 주셨다. 많은 생각이 들었고, 사실 지역 훈련 때부터 이 말은 내 가슴 깊이 새겨져 잊혀지지 않았다. 팀원 모두가 아띠 활동이 즐겁고 재미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개인이 받아들이고, 즐기며 활동할 수 있는 양과 방식은 다르고 어찌면 나는 그 방법을 찾은 운 좋은 사람 일수도 있다. 개인으로서 아띠 생활을 즐기는 방식을 터득했다면, 남은 시간 동안은 팀원들과 함께 배로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저런 많은 고민을 했고, 더 많은 고민거리를 얻게 된 10월이다. 행복한 순간들로 채워졌고, 좋은 사람들과 대화했다. 내 부족한 점을 알았고, 내가 잘하는 것들을 정의하기도 했다. 시간이 가는 것이 아쉽게 느껴질 따름이다. 11월은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나은이의 이야기

[마을]

내가 꿈 꿔왔던 마을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밥을 해 먹고 농사를 짓고 밤에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는 곳이다. 그러나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대도시, 호치민은 내가 이상하는 마을과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닥 이 생활이 달갑지 않아서 재미와 흥미를 가지지도 않았고 이웃들과 소통마저 하지 않았다.

나는 내 바로 옆집 이웃과 인사도 하지 않으면서 허황된 마을을 꿈 꾸고 있었다. 내가 바라던 '마을'이라는 곳도 분명 그 속에서 사람들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함부로 예쁘게 포장해버렸다. 그들에게 굉장히 실례되고 무례한 생각이었다. 내 지금의 이웃부터 챙기고 소통하려 노력해야지. 내 옆집엔 누가 사는지 서로 인사하며 친구를 만들어야지. 덤터기 쓰일까봐 겁나서 못간 로컬 시장도 가서 덤터기도 쓰여보고, 가격 흥정도 해보며 단골집을 만들어야지. 내 이웃, 내 주변을 느끼며 살아야지.

나은이의 이야기

[베트남에서 살아남기]

우리 팀은 프로젝트에 있어서 최고의 팀이다. 무엇이든 완벽하고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다. 서로를 칭찬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지 않았다. 무언가 힘든 것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힘든지 서로 나누어야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텐데 말이다.

우리는 일하러 온 노동자가 아니다. 전국에서 20명이 뽑혀 아시아 각 나라로 파견된 선택 받은 사람들이다. 자부심을 갖고 베트남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어떤 문화,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것이다. 주변을 더 돌아보며 베트남을 온전히 느끼고 싶다. 힘들다고만 찡찡했던 2개월을 뒤로하고, 남은 3개월은 더 적극적으로 베트남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이 소중한 현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기에 후회없이 즐기고 싶다.

사랑해보자. 베트남을, 우리를, 나를!





은솔이의 이야기

- 차별적 발언

인권과 평등, 약자에 관심이 많았다. 내 시선 속 세상은 불편하게 보이는 것 투성이였다. 친구들이 농담으로 던진 말도 ‘저거 차별적 발언인데...’ 하는 생각이 들고, 티비를 볼 때에도 소수자와 약자를 존중하지 않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보였다. 관련 영화, 영상, 서적을 보며 더욱 관심을 가졌다. 예민하고 불편해야 잘못된 것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민하다는 것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니 세상을 바꾸는 첫 단계는 예민과 불편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난 아직 실제 내 주변에서 차별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내 말투가 부드럽지 않을 까봐,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까봐, 분위기가 싸해질 까봐, 너무 진지한 사람처럼 보일 까봐. 이처럼 잘못된 말 한마디를 바로잡기 위해선 엄청난 고민과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현재 장애아동교실에서 보육을 담당하는 봉사를 하고 있다. 꽤 많은 순간 장애인 비하발언을 듣는다. 그러나 나는 위에서 언급한 용기가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상황 속에서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은솔이의 이야기

- 완벽한 결과물

내가 내 기준에 완벽한 결과물을 추구하다 나와 기준이 다른 팀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자고 국내훈련때 수없이 다짐했는데 베트남에 온 후 다시 원래 나의 모습으로 돌아와 결과를 위한 과정을 겪고 있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때의 기준, 문서를 작성할 때의 기준, 규칙준수의 기준을 팀원들에게 맞추는 방법을 고민하고 싶다. 남은 3개월동안 나와 팀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전이며 그 과정 속 나 또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 관계

라운아띠 면접 때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당시 나는 팀원과의 관계는 그닥 걱정되지 않으며 그저 타지에서 신체적으로 아플 때 외롭고 힘들 테니 그게 걱정이라고 답했다. 그만큼 단체생활과 관계에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현시점 가장 어려운 게 '관계'라는 생각이 든다.

모든 사람은 다 다른 정도의 포용력, 이해력, 씬씬이, 일의 능률,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닌 정말 깊이 깨달았다. 그리고 모든 게 다른 다섯명의 멤버가 하루 24시간을 함께 생활하며 맞춰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놀라운 일인지 느꼈다. 20여년간 모두 다른 배경에서 자라왔으니 우리가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른 것을 맞춰가거나 다른 자체를 이해하며 공존해야 한다. 그 과정이 날이 서지 않고 따듯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민석이의 이야기

베트남에 온 지 두 달이 지났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다. 솔직히 출국한 게 엊그제 같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두 달 동안 많이 한 것도 없고 다양하게 경험해보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운 두 달이기도 한다. 그래도 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베트남 둘러볼 때가 많으니 다 둘러보고 갈 것이다. 10월은 종일 epc에 전념했다. 회의부터 제작까지 진짜 한 달을 준비하기만 했다. 그래도 뿌듯하다. 왜냐??? 끝났기 때문이다! epc 준비를 하면서 메인 포스터 작업을 하였다. 프린팅해도 되지만 담당자인 나와 나은 누나는 원하는 그림으로 만들기 위해 직접 스케치하고 물감으로 색칠을 하였다. 포스터를 완성하기 위해서 방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갇혀서 그림 그린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다. 봉사를 가지 않아서 기분이 좋기도 하였지만 그만큼 힘듦의 정도는 달랐다. 9월에는 베트남에 적응하는 게 어려웠다면 10월에는 일에 치인 것 때문에 힘이 들었다.



인혁이의 이야기

베트남에 와서 수 많은 활동을 경험하고 적응해 나간지 어느덧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처음에 바쁘고 지친 생활때문인지 “시간이 정말 안 지나간다”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거의 절반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end poverty까지 완료했을 때 든 생각은 “어 벌써 10월이 끝났네?”였다. 무언가를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드는 생각은 당연히 몇 번 해본적이 없고 적응해야 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보낸 시간들 가운데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너무 일만 하고 지역주민들, 바로 옆집 아주머니와 인사 한번 하지 않았다는 점, 이외의 사람들이랑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다 문득 내가 여기를 일을 하러 왔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여기 와서 항상 바쁘고 과제, 알바 등에 치여 살았던 한국에서의 생활과 다른 생활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다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중간중간에 계속 의문이 들었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은 활동보다도 조금 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문화, 환경에 대해 나도 알고 싶고 그들에게 더 나아가고 싶다. 그리고 나도 조금 더 노력할 것이다. 계속 봉사만 하고 회의만 하고 업무에 치여 사는 삶이 아닌 여러 사람과 소통하며 알아가고 많은 경험을 통해 잊지 못할 값진 추억을 남기고 싶다.



To be Continued

NOVEMBER



19기 베트남팀
강예진 김나은 원민석 조은솔 최인혁